

소련—東歐의 統合軍事秩序：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관한 一研究

朴 相 變*

<目 次>	
I. 서 론	약기구의 제도 정착
II. 2차세계 대전 직후 동구의 소비에트화 과정	5. 헬싱키 이후의 바르샤바조약
III. 바르샤바조약기구 성립의 역사적 배경	6. 1980년대의 바르샤바조약기구
IV. 바르샤바조약기구의 발전과정	V. 바르샤바조약기구의 평가
1. 후르시쵸프의 집권기	1. 소련의 정치적 목표와 바르샤바조약기구
2. 민족주의 경향의 등장과 바르샤바조약기구를 통한 통합	2. 바르샤바조약기구와 소련의 군사적 목표
3. 1968년 체코 사태와 바르샤바조약기구의 변모	3. 동구국들의 시작
4. 동서진장완화와 바르샤바조약기구의 변모	VI. 결 론

I. 序：近代國家體制와 社會主義 國際關係

국제정치사적 시기구분에 입각할 때 近代는 1648년 웨스트팔리아 조약을 기점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 근거는 이 조약을 통해 근대국가(modern state)가 정당한 또는 합법적(legitimate) 정치단위로서 국제적으로 공인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대국가체제는 그후 자기 변화를 지속하여 프랑스 혁명을 겪은 후 19세기를 거치면서 民族國家(the nation state)의 정치적 틀을 완성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국제체제는 이 민족국가로 구성되는 것으로 이해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민족국가적 국제정치체제는 그 나름대로의 독특한 정치원리를 포함하는 바 그것은 곧 민족을 바탕으로 조직된 정치권력이 對內外的으로 主

* 서울대 사회대, 외교학

權을 갖는다는 기본 원칙에 입각한다는 사실에서 그 기본적 성격이 결정된다. 이 主權의 원칙은 국민국가를 바탕으로 조직된 政治權力에 대한 국가, 상호간의 승인을 의미하는 것인 바 이러한 관념은 실제로는 각국이 자기 능력 위에서 보유하는 軍事力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즉 軍事力を 바탕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한에서 主權은 존중될 수 있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近代國家는 軍事國家로서 규정될 수 있는 것이다.⁽¹⁾

19세기적 국제정치의 역사적 특징은 당시까지의 국가재정 능력과 기술발전의 제한된 수준으로 인하여 어떠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비해 군사적으로 월등하게 강대해 짐으로써 帝國的 野心을 실현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그러한 제국적 야심을 실현하고자 하는 국가가 출현할 경우 각국들은 軍事同盟을 체결함으로써 이러한企圖를 좌절시킬 수 있었던 바 이것이 바로 劢力均衡(balance of power)의 원리였다.

이 세력균형의 원리는 제한된 國力을 바탕으로 하는 다수의 정치단위들, 즉 국민국가로 구성되는 근대 국제질서의 최고의 작동원리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1차대전을 계기로 美國과 蘇聯이 大陸國家的 지위를 바탕으로 하면서 그 이전의 국가규모를 훨씬 넘어서는 超强大 國家로 등장하면서 古典的 努力均衡原則은 더이상 그 이전처럼 작용하지 않게 되었다. 그 고전적 세력균형이 세계정치의 원리로서 더 이상 작용치 않게 된 것은 국제정치의 주요 참가자인 국가들이 美·蘇를 각기 폐권국가로 하는 陣營으로 나뉘어 편입됨으로써 균형자로 활동할 수 있는 제3국의 존재가 사실상 사라지게 된 점에서 기인한다. 즉 이것은 세계적 힘의 배분관계가 多極體制에서 兩極體制로 옮아 간 것을 말하는 것인데 양진영의 주도국가인 美國과 蘇聯은 각자 나름대로 자기 진영의 정치적 결속을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다.⁽²⁾

美國을 주도국가로 하는 西方진영의 경우 전통적 국제질서의 원칙들을 계승하고 경제적인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발전한 有機的 關係를 기저로 하면서 진영의 내부 결속이 유지되어 왔던 관계로 전통적 국제정치상의 규범인 민족주의 심볼과 진영결속 사이에는 마찰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것으로 여겨진

(1) 軍事國家로서 近代國家를 파악하는 관점에 대해서는 李用熙, 一般國際政治學(上) (博英社, 1962), 4장 2절, pp.110-48을 볼 것.

(2) 국제정치질서에 있어서 多極體制와 兩極體制가 갖는 독특한 의미에 대해서는 Raymond Aron, *Peace and War: A The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New York: Praeger, 1967), pp.125-149를 참조할 것.

다. ⁽³⁾ 그러나 역사적 전통이나 경제생활권이라는 점에서 그리 많은 공통성을 갖고 있지 않았던 소련과 동유럽의 관계는 하나의 진영으로서 결속되기 위해서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차원에서 상당한 인위적 노력을 수반하였고 그러한 노력은 곧 군사적 강제력의 적용을 매개로 하는 것이었다.

하나의 진영으로서의 동구권의 정치적 결속력의 강화를 위한 소련의 이러한 노력은 전통적인 국제정치적 가치인 민족주의 상징과의 마찰을 빚어내었으나 超國家的 개념으로 제시된 階級의 개념을 바탕으로 그러한 마찰을 극복하려 하였다. 바로 이점에서 전통적 국제정치관과는 구별되는 社會主義 國際秩序의 개념이 제시되는 바 ⁽⁴⁾ 이것은 동유럽의 각국에 대한 소련의 특수한 지위에 대한 정당화 명분으로 이해될 수 있다.

본 논고에서 시도되는 바는 위와 같은 역사적으로 독특한 社會主義 國際秩序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지되는가 하는 점을, 그 군사적 결속의 제도화 면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전통적 민족주의적 관념, 즉 國家主權의 平等性을 기지가치로 하는 국제정치관에서 볼 때는 「從屬」(dependency, subordination)이라는 관점으로 정리될 수 있으나 이러한 특정한 가치를 배제할 경우 단순히 起國家的 軍事系列化 또는 軍事協力體制의 구축이라는 점에서 설명, 기술될 수 있다. 다만 동유럽 국가들 자체에서도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소련의 지배적 지위에 도전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지만 본 논고에서는 이러한 양상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보다는 사회주의 국제질서의 동태를 설명하는 하나의 요인으로서 고려될 것이다.

II. 2次世界大戰 직후 東歐의 소비에트化 과정

東歐 전체에 걸친 소련의 지배권 확립의 기도는 戰前까지 이 지역에서 강

(3) 이것은 자본주의 질서의 패권국으로서 미국이 자기 진영을 결속시킴에 있어 武力의 직접 사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60년대 말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소위 從屬理論의 유포로 인해 미국에 대한 진영내 국가들의 民族主義의 반감이 있었음은 소련의 경우나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과 소련의 차이를 다루는 글로서 Valevate, 1986은 흥미있는 비교를 제시하고 있다.

(4) 「社會主義 國際秩序」의 특징적 성격에 관한 간단한 소개로는 McNeil, 1967에 저자가 붙인 “Introduction”을 참조할 것. 한편 金容九「蘇聯國際法理論研究」(一志社, 1981)은 「사회주의 국제질서」의 독특성을 소련 국제법 체계에서 찾아내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던 獨逸이 戰爭에서 패망함과 함께 현실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즉 이 지역에서 獨逸軍이 물러난 후의 權力真空狀態가 소련 赤軍에 의해 채워지게 되었다는 사실은 전통적으로 이 지역에 대해 특수이익을 주장해 온 소련으로서는 정치적으로 대단히 유리한 기회를 포착한 셈이었다. 美國이 전통적인 門戶開放의 원칙하에 東歐地域國家들의 自決權을 주장하고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소련의 배타적 지배권을 인정하지 않으려 함에도 불구하고 소련은 이 지역에 단독으로 주둔한 赤軍을 배경으로 독점적 지배권을 관철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결국은 東西冷戰의 기본적 원인이 된 東歐問題에 대한 소련의 집착은 기본적으로 두가지 관점에서 설명된다. 그 하나는 終戰直後의 상황을 소련에 유리하도록 활용하려는 스탈린의 의도라는 면에서 풀이된다. 즉 이 지역에서 종전 직후 크게 부각된 社會的・政治的 變革의 물결이 오래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고 따라서 英美聯合國을 소의시키는 댓가를 치루고서라도 혁명적 기운을 빨리 활용하고자 했다는 것이다(Zinner, 1952:497-99).

다른 하나의 관점은 1917년 공산혁명이후 西方列國의 反革命干涉 시도에 대한 소련의 위협의식이라는 점에서의 설명이다. 즉 종전 이후 소련의 정치적・군사적 성과를 西方國들이 축소시키려 할 것이라는 예상하에 스탈린은 이것을 막기 위해 赤軍에 의해 점령된 지역에서 소련의 지배권을 강압적 방식으로 공고화한 것이 구체적으로는 東歐國들의 衛星國化로 나타났다는 것이다(Shulman, 1963:13-18).

이데올로기의 측면을 강조하는 전자의 관점과 군사적 안전을 강조하는 후자의 관점은 사실상 분석적인 구분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따라서 현실적으로 두가지 관점은 하나의 설명으로 합쳐질 수 있고 따라서 소련의 對東歐政策의 두가지 면을 말하는 것이다. 즉 西方が 소련에 대해 기본적으로 敵對的이라는 스탈린의 믿음을 고려할 때 소련으로서는 東歐地域이 西方의 對蘇攻擊基地化되는 것을 용납할 수는 없었고 또한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東歐地域에 수립될 국가들은 親蘇의이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때 소련의 입장에서 親蘇의이란 것은 곧 소련과 같은 政治・經濟體制를 갖는 정부의 수립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스탈린의 판단에 의하면 非共產政府는 반드시 反蘇政府로 발전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 판단에 입각하여 終戰後 東歐各國은 赤軍의 포위하에 소비에트化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終戰直後부터 곧바로 소비에트화 작업이 시작되지는 않았다. 1946년까지 소련의 일단계 작업은 東歐地域에서 西方側의 영향력을 점차적으로 배제하는데 국한되었다. 이러한 지역의 이유는 당시 소련의 목표가 이 지역 국가들의 즉각적 공산화보다는 이 지역에서의 소련의 전략적, 경제적 특수이해를 확립하는 데 우선적으로 주어졌고 동시에 自國內 경제개선의 노력으로 인해 동구 공산화 정책은 그 속도가 늦춰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너무 급격한 공산화 정책으로 인해 西方의 경제심이 자극되는 것도 혁명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공산화 목표 자체가 포기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산화를 앞두고 각국 국내의 잠재적 반대세력을 제거하는 준비작업이 추진되었던 것이다.

이 시기는 東歐 共產化過程에서 소위 「人民民主主義」(Peoples' Democracy) 단계에 해당되는 시기였던 바, 戰時中 反나치운동의 경력을 가진 공산지도자들에 의해 건국된 유고슬라비아와 알바니아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東歐國들이 이 단계를 거쳤다. 1947年 코민포름(Cominform)이 코민테른을 대체하여 설립되는 때와 일치하여 東歐의 소비에트화 작업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소련의 직접적 통제 하에 동구국들은 완전한 위성국으로 변모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東歐地域은 소련에 종속된 단일 陣營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스탈린에 의한 東歐의 소비에트化—衛星國化 작업은 비밀경찰, 黨 및 軍 등 다양한 수단과 경로를 통해 개별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一律的 統制(Gleichschaltuug) 방식을 채택하였기 때문에 심각한 반발을 자극하였고 따라서 이 지역의 民族主義意識을 재고취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그 구체적 표현의 하나로 유고슬라비아의 티토는 자신의 국내정치적 기반을 배경으로 소련의 간섭과 통제에 성공적으로 도전하였다.

비록 東歐地域 전체를 소련에 복속하는 단일 진영으로 결속시키는 데 성공하였으나 스탈린의 對東歐統制는 기본적으로 個別과의 雙務的 접촉방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유고슬라비아와 같은 離脫國이 출현하면서 스탈린은 새로운 통제방식을 채택하였다. 즉 지역 전체의 경제계획에 대한 소련의 영향력을 制度化할 목적으로 「經濟相互援助理事會」(Council for Economic Mutual Assistance=CMEA, COMECON)를 1949년 1월 발족시켰다. 이 이사회는 어떤 의미에서는 西方國의 마샬 플랜에 대응하는 다변적 조직으

로서 진영 전체에 걸친 資源의 결집과 소련의 경제계획안과 연계시킨 分業을 목적으로 내걸었으나 스탈린 治下에서 이 기구는 경제통합보다는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집단 보이콧을 위한 수단의 성격이 더짙었다.

軍事力면에서 볼 때 東歐國들은, 나치에 저항한 유격군을 갖고 출발한 유고슬라비아를 제외하고서는, 전쟁과 혁명을 겪는 동안 거의 파괴된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軍의 재건작업에도 소련의 주도와 원조하에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다. 스탈린의 東歐軍 재건은 일차적으로는 各國軍內에서 소련에 대한 충성심이 의심되는 인사들의 제거작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軍事力의 구체적 재건작업은 東歐各國에 수립된 共產政權이 안정기에 들어가게 된 1949년부터 시작되었다. 이 시기는 대체로 소련과 적대관계가 항구적인 것으로 확인되던 시기인데 스탈린은 東歐國의 再軍備를 통해 東歐가 갖고있는 軍事的潛在力を 소련 군사력에 추가시키는 일반계획을 이 당시까지 이미 구상해 놓았던 것으로 이해된다. 대체로 이 시기까지 소련은 東歐의 각국들과 軍事的雙務條約을 완결하는데 이것과 더불어 스탈린 사망시까지 지속된 再軍備의 준비작업이 완료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949~1953년 기간동안에 이루어진 재군비작업은 일차적으로 각국별로 서로 다른 軍組織을 소련식으로 개편하고 정치적 신뢰성 및 기술적 효율성의 기준에 따라 광범위한 숙청을 진행시켰으며 또한 東歐 주요 軍幹部職은 소련장교에 의해 취임되었다. 이후 각국 군대에 대한 장비지급이 이루어졌는데 대체로 東歐軍內 장비 표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이 軍事力再建 작업의 결과 1953년까지 東歐軍의 兵力은 약 150萬에 도달하게 되었고 空軍도 처음 창설되었다. 그러나 스탈린의 사망시까지 軍部의 재건작업은 여전히 未完成 상태였고 따라서 신뢰성과 효율성은 여전히 소련에 의해 의심되었다. 따라서 이때까지, 그 이후로도 소련은 군사문제에 관한 스스로의 군대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Wolfe, 1965:3-5) 이러한 관계로 스탈린은 후일의 바르샤바 조약에서 보이는 바와 비견될만한 軍事協力を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다. 물론 스탈린 시대의 변화가 바르샤바 조약이 작동할 수 있는 기초적 조건이 되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Wolfe, 1970:44)

Ⅲ. 바르샤바 條約機構 成立의 歷史的 背景

：國際狀況의 變化와 세로운 統制方式의 요청

소련과 東歐衛星國들 사이의 多邊的 軍事協力體로서 성립된 바르샤바조약기구(Warsaw Treaty Organization)는 1955년 5월 14일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에서 그 가맹국인 소련,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東獨, 항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및 알바니아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식으로 발족하였다. 이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공식적으로 전년도(1954), 소련이 제안했던 獨逸의 恒久的 中立化와 分斷을 골자로 하는 歐洲安保體制案을 西方國들이 수락하기를 거부한 데 대한 대응策으로서 제시된 것이다. 당시 西方은 1954년 10월 23일의 파리協定을 근거로 西獨을 NATO에 참가시키려 하고 있었다. 이 협정이 서독의회에 의해 비준된 4일후인 1955년 5월 5일 西獨은 NATO에 정식으로 가입하였던 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東歐國들은 바르샤바에 몰려 소위 바르샤바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렇게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출현은 西獨의 NATO加入에 대한 정치적 대응책으로 이루어졌으나 실상 그 의미는 단순히 東西兩陣營間의 軍事對立 그 자체뿐 아니라 東歐陣營 자체내의 사태변화속에서 발견되어야 한다.

앞절에서 지적되었듯이 東歐國들의 再軍備는 1949년부터 시작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1950년대 초부터 고조되기 시작한 東西軍事緊張 속에서 東歐軍의 중요성을 스탈린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된 결과였다. 그에 따라 이루어진 東歐軍의 組織化는 소비에트化의 방식을 따랐던 바 예컨대 주요 지휘관들은 軍事經驗보다는 出身社會階層과 이데올로기적 태도를 기준으로 충원되었다. 동시에 內部組織, 訓練方式, 軍事理論, 戰術, 그리고 제복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소련 방식이 채택되었다(Johnson, 1984:258-9).

비록 東歐의 군사적 정치적 지위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바탕으로 東歐衛星國의 再軍備가 시작되었으나 獨自의 軍隊를 보유함으로써 동구국가들이 소련의 정치적 통제를 벗어날 수 있을 가능성은 유고슬라비아의 경우를 통해 극적으로 표출되었다. 이에 따라 스탈린은 各國軍에 대한 自國內 黨을 중심으로 한 統制에 만족하지 않고 소련의 직접 통제를 동시에 강화하였다. 각국의 軍司令官들은 소련군 출신 장교들에게 종속토록 하였고 조직의 말단

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요 부서들은 소련군 장교들에 의해 장악되었다. 그 가장 극적인 예로 1949년 폴란드 國防相職에는 소련인인 콘스탄틴 로코소프스키(Konstantin Rokossovskii)가 취임하였다.

이러한 통제방식은 스탈린의 개인독재체제 하에서는 그런대로 가능하였으나 일단 스탈린의 死亡과 함께 오히려 소련 지도자들에게 부담으로 남게 되었다. 또한 東歐人們에게는 정치적 굴욕과 불만의 요인이 되었다.

스탈린이 사망한 이후에도 東歐를 여전히 소련의 지배권하에 두어야 할 필요성은 남게 되었으나 그 통제에 있어서는 스탈린적 방식이 더이상 가능할 수 없음을 파악한 소련 지도자들은 기왕의 통제방식을 완화하는 한편 변화된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효율적인 統制・調整 방식을 추구하게 되었다. 즉 스탈린의 개인적 권위에 입각하는 통제가 아닌 보다 제도화된 정치를 필요로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제도화된 정치를 통해 소련은 자신들의 의지를 東歐國들에게 전하고 동시에 소련 정책에 대한 東歐國들의 지원을 동원하여야 했다. 그런데 이 장치가 보다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과거와 달리 소련에 의한 주도권 행사가 가능하면 덜 두드러지는 것이 필요했고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東歐國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보다 크게 허용되는 듯한 의양을 갖출 필요가 있었다. 바로 이러한 조건을 갖춘 상호 협의・조절기구로서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설립되었고 이것은 1949년에 이미 만들어진 COMECON과 함께 새로운 다변적 협의체・통제기구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한편 새로운 방식의 多邊的 統制・調節機構의 필요성은 核武器開發과 NATO軍의 武器近代化・증강에 따라 변화된 軍事理論上의 요청이기도 하였다.

* 이 변화된 군사이론에 따르면 소련군과 東歐軍은 합동으로 소련의 완충지역을 방위하도록 인식되었다. 따라서 東歐軍은 소련의 전략상에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고 결국 東歐軍은 소련군 현대화 과정의 일부분으로 취급되었다. 東歐軍이 소련 전략상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으로 재조직될 뿐 아니라 새로운 장비의 보급이 필요했고 또한 兵力도 장비에 맞추어 현실적 수준으로 감축되어 기능성을 갖출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士氣의 고양을 위해 소련군 장교에 의해 충원되었던 주요 지휘관 직책이 본국민으로 대체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재조

적 과정에서 사라지게 될 直接統制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소련의 전반적 지휘하에 이루어지는 調節機構의 설립이 요청되었던 바 이 요청에 따라 소련—東歐聯合 最高司令部가 설립되었다.⁽⁵⁾

한편 이러한 소련의 東歐政策의 전환은 스탈린 以後의 權力繼承을 위한 투쟁과정에서 후르시쵸프를 중심으로 한 改革派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임을 추가로 기록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IV.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발전과정

1. 후르시쵸프의 執權期, 1955~1964

앞절에서 우리는 바르샤바 조약기구 성립의 정치적, 군사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그것들은 대체로 巨視的 맥락에 관련된 것이었다. 이에 비해 바르샤바 협정이 당시 특정 시기에 제시된 이유를 고려할 때 1955년 5월 15일 美・蘇・英・佛 4개국 사이에 체결된 오스트리아 國家條約(Austrian State Treaty)의 의미를 되새기지 않을 수 없다. 이 조약에 따라 소련군이 오스트리아 동부에서 철수해야 했고 따라서 오스트리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설치된 通信線을 보호하기 위해 소련군은 루마니아와 헝가리에 대한 병력주둔을 정당화시킬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5월 14일자로 맺어진 바르샤바 협정에 근거하여 루마니아・헝가리 양국은 소련군의 자국 주둔을 요청하였고 이에 응하는 형식을 빌어 소련은 양국에 계속 병력을 잔류시킬 수 있었다(Starr, 1967:215-16, Mackintosh, 1963:103, Remington, 1971:19).

이렇게 바르샤바 협정이 체결 당시의 즉각적 문제에 대응해서 나타났고 따라서 그 협정이 갖는 정치적 의미에 충실한 조직이 제대로 발전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되었다. 즉 아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후르시쵸프의 집권인 1964년까지의 첫 10년간에 있어서 동 조약기구는 그 기능이나 그것에 수반하는 조직면에서 크게 팔목할만한 성장을 없었다.

바르샤바 협정은 前文과 총 11條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제 6 조에서 각국 대표들로 구성되는 政治諮詢委員會(Political Consultative Committee)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最高政治軍事機構의 역

(5) 이 사항은 바르샤바 조약 제 5 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 조약문은 McNeil, 1967: 80-83을 볼 것.

할을 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제 5 조에서는 가맹국 군대의 統轄을 위한 聯合司令部(Combined Command; Joint Command)의 설치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맹 전체의 防衛力의 增強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만들어진 聯合軍(Combined[Joint] Armed Forces)의 조직은 上記 政治諮詢委員會(이하 PCC로 略)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다.

PCC활동 및 조직에 관한 규정은 1956년 1월 27~28일간 프라하에서 개최된 제 1차 PCC총회에서 채택되었다. 世界 軍事陣營의 철폐와 兩獨에서의 撤軍 등에 관한 의례적 선언문에 덧붙여 채택된 상기 규정에 의하면 PCC는 주요 사태가 있을 때마다 소집될 것을 규정하고 최소한 年 2回의 모임을 가질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1차 회의에서는 聯合司令部에 관한 憲章을 채택하고 또한 두개의 補助機構인 常任委員會(Permanent Commission)과 聯合事務局(Combined Secretariat)을 모스크바에 설치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 1차회의에서 채택된 결정에도 불구하고 제 2 차회의는 1958년 5월 24일에 모스크바에서 개최되었고 그 이후의 4차례의 회의는 모두 모스크바에서 대단히 간헐적으로 (평균 18개월 간격) 개최되었으며 규정된 대표 전원 (黨書記, 首相, 外務長官, 國防長官)이 참석한 회의는 드물었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볼 때 후르시초프 집권기간동안 PCC는 진정한 의미에서 정책결정기구였기보다는 그때그때의 소련 정책노선을 전달하는 討論場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주로 상징적 역할만을 수행하였다.

軍事的인 면을 고려할 때에도 1950년대까지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文書上의 同盟體에 불과하였다. 즉 聯合司令部는 1956년의 항가리 사건시에도 개입치 않았고 한 번도 合同軍事訓練을 시도하지 않았다. 그러나 1960년대 들어오면서 후르시초프의 정책에 따라 소련 地上軍이 강축되고 로켓부대가 신설, 증강되면서 바르샤바 조약 가맹국 지상군의 중요성이 증가하였다. 후르시초프의 정책에 따라 1960년 바르샤바조약 연합사령부의 최고사령관직에 새로 임명된 그레치코(A.A. Grechko) 원수는 1961년 10월 처음으로 조약국 合同軍事機動訓練을 실시하였다.

이 1차 군사훈련은 당시의 베를린 危機에 맞춰 急造된 것이기는 하였으나 이 이후로는 매년 수차례씩 정례화됨으로써 군사동맹으로서의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질적 발전을 기하는 데 큰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이러한 기동훈련

의 과정 속에서 各國 軍隊의 한 체계내로의 統合이 이루어졌고 또는 裝備의 현대화가 달성되었다. 이 외에도 각국의 무기체계가 소련에 따라 표준화되고 소련식의 軍編制와 戰術理論에 따라 東歐 各國間의 軍事的 役割分擔이 규정되었다. 즉 합동군사훈련을 통해서 東歐各國은 소련의 지휘 체계 속으로 편입되었고 실질적인 統制 및 調整이 가능해졌다.

2. 民族主義傾向의 등장과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통한 統合 : 1965~1967

브레즈네프 집권초기에 있어서 東歐圈內의 큰 변화는 소련의 획일적 東歐政策에 대해 個別國의 독자적 행동노선을 강조하는 異見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脫蘇聯的 태도의 표명은 루마니아에 의해 선도되었고 이러한 「民族主義的」 압력에 적절히 대처하는 방안을 소련의 새 지도부는 발견하여야 했다. 이러한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소련은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討論場을 이용하여 東歐圈內의 國家들의 支援을 유도함으로써, 정치·외교문제에 관한 多邊的 협의기구로서 동기구의 기능은 확대되었다.

한편 NATO軍에 대응하는 軍事同盟體로서의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성장은 1961년부터 시작된 合同軍事訓練의 지속적 발전과 함께 더욱 박차가 가해졌다. 1965년에 실시된 합동군사훈련 “October Storm”은 합동군사훈련의 새로 운 추세를 드러내었던 바, 東獨,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三國으로 형성되는 바르샤바 조약국의 北方地域(Northern Tier)의 중요성을 이때 처음 드러내었다. 이 훈련기간에 이들 3國과 소련 사이에는 군사전략이론, 장비, 훈련방식 등에서 훨씬 큰 정도의 통합가능성이 나타났고 이외에도 情報網의 통합을 달성할 수 있었다. 이런으로써 바르샤바 조약군은 비록 유기적으로 통합되지는 않았으나 1967년 말까지에는 장차 있을 戰爭에서 소련군에 직접 참여해 싸울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을 과시하기에 이르렀다.

3. 1968년 체코 사태와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변모

소위 「프라하의 봄」으로 알려진 1968년 전반부에 체코에서 일어난 자유화 운동과 그에 대한 소련의 억압정책은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정치적 성격과 군사적 능력의 한계를 잘 드러내었고 또한 이것을 계기로 한 소련정책의 전환은 바르샤바 조약기구 발전과정에 있어서 分水嶺을 이루었다.

두브체크 개혁과 黨書記를 중심으로 하는 黨·정부주도하의 개혁을 봉쇄하기 위한 압력으로 소련은 1968년 한 해에만 10차에 걸쳐 체코 점령지대에서 바르샤바 조약군의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8월 21일 체코슬로바키아 침공을 담당한 것은 바르샤바 조약군이 아니라 소련內에 주둔하던 소련 지상군이었다. 그리고 작전의 지휘도 바르샤바군 총사령관이 아닌 소련 지상군 총사령관이 담당하였다. 바르샤바 조약군은 兵站 업무에도 개입하지 않았다.

소련군의 체코슬로바키아에 대한 적접 침공의 결과로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서유럽의 복잡한 조직구성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軍事機構를 갖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즉 戰爭이 발발하는 경우에는 소련군이 바르샤바 조약군 합동사령부에 부속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샤바 조약군이 소련군 사령부 휘하에 편입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2차대전후 한 번도 수정되지 않은 소련 戰略原則이었던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비록 실제 작전에서는 바르샤바 조약군이 배제되었으나 소련군의 적접적 작전에 앞서 실시된 위협용의 合同訓練은 東歐圈의 통합을 위해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담당하게 될 새로운 기능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체코슬로바키아 침공이 비록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소련 지도자들은 바르샤바 협정의 군사구조를 개편하여 소련의 統制를 회생시키지 않으면서 東歐國家들의 바르샤바 협정에 대한 참여를 높이려고 하였다. 이러한 제도개혁은 반드시 체코슬로바키아 사건에 자극받은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1965년 이후 軍事問題에 대해 최소한 자문적 역할이라도 담당할 것을 요구한 東歐國들의 지속적인 압력의 결과였으나 체코슬로바키아 사태가 소련의 태도변경을 자극한 적접적 계기가 되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Simon, 1985:62) 1969년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된 PCC모임에서는 아래와 같은 6개항의 제도개편이 승인되었다.

- 國防相會議(Committee of Defense Ministers)의 창설
- 聯合司令部의 개편
- 聯合司 아래의 常設參謀部의 설치
- 軍事委員會(Military Council)의 설치
- 科學技術開發委員會 설치
- 聯合軍의 새 規程 채택

가. 國防相會議

원래 PCC의 전원회의는 각국의 黨第一書記, 政府首班, 國防相, 外務相들이 대표로 참석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러한 전원회의의 경우는 대단히 드물었다. 따라서 國防相間의 상호 협의도 非公式的으로만 드물게 있었다. 그러나 1969년 개혁을 통해 國防相會議는 PCC와 별도로 구성됨으로써 바르샤바 조약국들은 동 기구의 정책결정과정에 보다 빈번히 그리고 보다 정기적으로 (평균적으로 年 1回)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증진된 참여기회는 東歐圈들의 「民族主義的」要求에 대한 진정 효과를 가져왔는데, 체코슬로바키아 침공 사태에 따른 東歐圈들의 전반적 사기저하를 보상하게 되었다.

나. 軍事委員會

이 군사위원회의 정확한 구성 및 기능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대체로 바르샤바 조약군 총사령관, 부사령관, 참모장(이상 모두 소련인) 및 가맹국 군대표로 구성되는 것으로 믿어진다.

그 기능은 國防相會議의 자문역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반드시 國防相會議 전에 개최되는 것은 아니다. 창설된 1969년부터 1971년까지는 총 5회의 모임을 가졌는데 이것은 평균 年 2回의 소집을 말하고 따라서 國防相會議보다 잦게 개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 1회 軍事委員會(1969. 12. 9~10)의 경우 “兵士, 지휘부, 참모부 훈련의 개선과 聯合軍指揮部의 강화”가 토의되었다고 전해진다(Simon, 1985:66 note 53). 여하튼 이 군사위원회의 설치는 소련의 중요한 양보로 이루어졌는데 즉 이 기구를 통해 바르샤바 조약기구 군사정책에 관한 東歐國들의 참여도가 훨씬 증진되었다.

다. 聯合軍의 개편과 聯合軍 常設 參謀部의 설치

1955년 창설될 당시의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규정에 의하면 聯合軍 司令官은 소련군 副國防相이 맡고 그 휘하의 副司令官에는 東歐國 國防相들이 취임함으로써 東歐圈의 國防相들이 소련 副國防相의 지휘를 받게되는 어색한 결과를 낳았다. 1969년의 개편안에서는 기왕의 각국 國防相이 맡던 부사령관직을 副國防相들이 맡게 하였다. 그 결과는 단순히 威信의 개선만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東歐各國의 聯合軍內의 지위를 부상시켰던 것으로 판단된다.⁽⁶⁾

(6) 이것은 Caldwell(1975)의 견해인 바 그 반대 의견들에 대해서는 Simon, 1985: 89, 주 49를 참조할 것.

1969년 이전까지 聯合軍은 常設參謀部를 갖지 않고 合同軍事訓練時마다 特別참모부를 구성해왔다. 그러나 1969년의 개혁을 통해 常設參謀部가 구성되었다. 이 개혁의 결과로 聯合軍活動은 더욱 큰 効果性을 갖게 되었고 東歐圈 將校들의 참여를 가능케 함으로써 戰時企劃, 訓練, 機動訓練 및 군사 장비 조달 등의 실무 수준에서 결정 참여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개혁이 군사력 증강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정확히 평가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그 이전에 없었던 軍事調整能力이 증가한 것으로 평가된다(Simon, 1985:67-85). 특히 이러한 능력의 증가가 合同軍事訓練의 效율성을 증가했다는 사실과 함께 당시 소련이 기울인 軍現代化 계획을 고려해 볼 때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제도개혁은 정치적인 의미뿐 아니라 軍事的 효과(軍事力 增強)도 노리고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1969년 이후 수년간의 광범위한 기동훈련을 검토할 때 소련은 다음과 같은 새로운 능력의 개발을 꾀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첫째, 合同軍事機動訓練은 PCC의 정치적 선언과 함께 東歐圈들의 활동과 소련의 「全戰域」(all-theater) 能力과의 연계를 시도한 것이었다. 둘째, 1969년 개혁 이후의 합동훈련패턴은 바르샤바 조약군의 指揮參謀活動, 對空防衛 및 兵站활동을 개선하려는 소련의 관심을 드러낸다. 세째, 聯合軍에 배속된 東歐軍의 현대화와 함께 합동훈련은 原子一化學戰을 염두에 두는 在來戰에 대한 지속적 준비를 반영한다. 끝으로 합동훈련은 聯合軍에 배속된 東歐軍과의 코뮤니케이션 및 그것의 指揮統制를 개선하려는 의식적 노력을 반영한다.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1969년 이후의 제도개혁은 바르샤바 조약기구 가맹 東歐軍을 적절히 통제하면서 동시에 戰鬪能力도 개선하려는 소련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또한 그러한 개혁은 어떤 의미에서는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군사목적상 진지하게 고려한 첫번째 행위였다는 점에서 바르샤바 협정의 진정한 탄생으로도 여겨질 수 있는 것이다(Simon, 1985:87).

4. 東西緊張緩和와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制度 定着 : 1972~1975

1969년 부다페스트 PCC에서 시작된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제도적 개혁의 실험은 1971년까지 3년간의 조정기간을 거치면서 1972년까지는 대체적으로 안정기로 접어들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 시기는 美國과 中共의 國交再開

및 中東戰 등으로 인해 美·蘇緊張關係 완화에 대한 부정적 요인도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장완화로의 추세는 꺾이지 않고 계속되어 1975년의 헬싱키 歐洲安保協調會議를 정점으로 東西和解 분위기는 지속되었다.

외부적으로는 긴장완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1969년의 제도개혁이 정착됨으로써 소련과 東歐國 사이의 유기적 관계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로 더욱 성장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발전을 바탕으로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東歐圈內 자체 문제에만 국한하지 않고 域外 전반적 잇슈들에 대한 일치된 견해를 표명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것은 세계적 잇슈에 대한 소련의 정치입장을 정당화하는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다시 바르샤바 조약을 통한 소련의 동구에 대한 정치적 통제, 조정의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1972년에서 1975년 사이 두 번에 걸쳐 개최된 바르샤바 조약의 최고기관인 PCC는 美·中共의 국교교체와 美國의 越南介入을 비난하고 또한 中東戰에서의 이집트 입장을 옹호하는 등 域外問題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中·蘇粉爭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회피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련과 東歐圈 사이에 異見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PCC가 세계정치상의 문제에 관한 태도를 밝히는 對外的 代表機關의 역할을 맡는 데 비해 東歐圈內 자체 문제의 토의는 주로 國防相會議 및 軍事委員會에서 이루어졌다.

1972년서 1975년까지 東歐國 首都를 돌아가면서 총 5회에 걸쳐 개최된 國防會議에서는 域外 國際狀況에 맞추어 바르샤바 조약국들 사이의 긴밀한 협조 및 軍事能力改善의 달성방안 문제가 주로 토의되었다.

한편 年2回 開催의 패턴이 고정된 軍事委員會는 聯合司令官의 책임하의 자문기능을 바탕으로 戰鬪準備狀況, 훈련상황, 兵力運用, 장비개선문제 및 연합군의 조직 등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어 왔다.

常設參謀部를 갖추면서 새로 개편된 聯合軍司令部도 이 기간동안 軍事協調를 深化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여왔다. 여기에서 주로 다루어진 문제는 각국間의 커뮤니케이션 및 兵力의 指揮統制에 관한 개선들이 있다(Simon, 1985:79)

1975년의 헬싱키 歐洲安保協調會議 직전 수년간에 있어서 소련의 바르샤

바 조약체제에 대한 정책은 그 이전의 기간에 비해 볼 때 상당한 변화를 보였다. 즉 1961년에서 1967년까지의 기간에는 NATO軍에 대한 공공연한 적 대감을 보이면서 合同軍事訓練을 실시하여 對外的 統制를 강화했고 1968년에서 1971년 사이의 기간에는 소련으로부터의 政治的 離脫을 시도하는 가맹국에 대한 압력을 의식하면서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1972년부터는 東歐地域에서의 소련의 既得權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으려는 목적하에 歐洲安保會議의 개최를 희망한만큼 對바르샤바 조약기구 정책은 이러한 평화공세에 맞추어 수정되었다.

이러한 수정은 물론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대내적 統制・調整의 약화나 합동군사훈련의 중지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 다만 과거와는 달리 합동군사훈련에 대한 대외 보도를 억제함으로써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공세적 인상을 완화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대외적 평화공세와 함께 대내적으로는 바르샤바 조약군의 전투수행능력에 대한 광범위한 개선은 한층 더 박차가 가해졌다. 특히 이 기간동안 소련은 바르샤바 조약의 다변적 기구가 갖는 한계점을 인식한 결과 바르샤바 가맹국의 個別軍과 소련군 사이의 雙務的 關係를深化하는 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1969~1971년 사이에 명백히 드러났던 指揮統制의 문제를 개선하는 데 계속 관심을 보여왔다.

5. 헬싱키 이후의 바르샤바 조약 : 1976~1979

헬싱키 歐洲安保協力會議를 통해 東西緊張緩和가 상징적으로 표출된 이후에 있어 東歐圈內의 국제관계는 점차로 분열적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東歐圈 자체의 문제보다는 域外問題를 둘러싸고 일어났고 脫蘇聯 추세의 기수는 역시 루마니아였다.

東歐圈內의 분열을 자극한 국제문제는 中東問題, 對中共과의 관계 등이 대표적인 것이었고 한편 바르샤바 조약국들에 대한 소련의 國防豫算 증가요구도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1976년 소련은 루마니아와의 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브레즈네프가 직접 초우세스쿠 루마니아 黨書記長을 만나기도 하였다. 이 頂上會談의 결과로서 소련은 이데올로기문제 및 외교정책문제에 관해 어느정도의 양보를 시사했고 그것은 1976년 11월 25일 부카레스트에서 개최된 PCC에서의 外相會議

(Foreign Ministers Committe) 설립공표로 구체화되었다.

PCC의 정식 부속기관으로 창설된 外相會議는 “바르샤바 조약 체결국 사이의 활동상의 調整을 개선하기” (Simon, 1985:122) 위한 것으로 소련에 의해 규정되었으나 루마니아는 단순히 “세계 및 유럽내 安全과 平和를 위한 투쟁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意見과 情報의 교환을 위한 자문적 토론장”으로서 그 성격을 제한하고자 하였다. 즉 소련은 外相會議를 통해 政治的, 이데올로기적 문제에 관한 各國間의 異見을 줄이고 통합된 政策를 유도하고자 하였으나 일단 제기된 문제들이 域外的인 경우(中東, 中共)나 또는 직접적 財政的 利害(國防費)가 걸린 경우에 있어서는 그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했다.

PCC와 그 부속기구로서 새로이 설립된 外相會議에서 주로 소련과 東歐國 사이의 政治問題에 관한 異見調停이 다루어진 반면에 國防相會議와 軍事委員會는 비교적 통상적 업무, 즉 軍事問題에 관한 協調와 調整이 지속적으로 다루어졌다. 다만 그 개최시기들이 대부분 PCC모임이나 국제적 사건에 맞춰졌다는 점에서 國家들간의 異見調停이 부분적으로는 이들 軍事機構들을 통해서도 시도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낼게 하였다.

헬싱키 歐洲安保協調會議 이후 바르샤바 조약군의 합동군사훈련에는 눈에 띠는 변화가 일어났다. 즉 훈련 횟수도 감소하고 규모면에서도 감축되었는데 동시에 소련은 이러한 변화를 애써 선전하였다. 이것은 아마도 헬싱키협정 정신에 대한 소련의 존중 태도를 광고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동시에 합동훈련은 과거 北方地域에 집중했던 데 비해 南方地域에서 자주 행해짐으로써 소련과 여러가지 면에서 異見를 보였던 루마니아에 대한 군사적 압력을 가중시키려는 의도를 노출시켰다.

전체적으로 볼 때 1976~1979년 동안 소련은 多邊的인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東歐國들을 통제하기에 적합치 않다는 사실에 대한 좌절감을 보다 노골적으로 보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6. 1980년대의 바르샤바 조약기구

1980년대에 있어서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성격을 시험하는 첫 국제적 사건은 1979년 12월 27일에 감행되었던 소련의 아프카니스탄 침공사건이었다. 이 사건의 발발에 관해서 바르샤바 가맹국들은 사전에 통고받은 흔적을 보

이지 않았는데 이러한 추측은 이 사건에 대한 반응이 대체로 느렸고 또한 미온적이었다는 점에 근거한다. 東獨만이 사건 발생 다음날 지지의 의사를 발표했고 그후 2주 후에 향가리 정부는 승인의 뜻을 발표했다.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및 불가리아 정부는 두 달 이상 침묵을 지키다가 아프가니스탄의 새 정부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했을 뿐이다. 루마니아는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소련의 침공을 간접적으로 비난하였다. (Simon, 1985: 157-62)

한편 1980년 5월 바르샤바에서 개최된 PCC회의에서는 아프가니스탄 문제 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또한 같은 해 10월과 12월 두 번에 걸친 外相會議와 12월과 1981년 1월에 개최된 國防相會議에서도 아프가니스탄 사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이와 유사하게 1980~1981년간의 폴란드 自由勞組 사건으로 인한 위기 시에도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주요기관들은 여러 차례의 모임을 가지면서도 침묵을 지켰다. 더우기 개혁파에 대한 壓力用으로 개최된 총 13회의 합동군사 훈련도 3회만이 多國訓練이었고 나머지는 蘇聯과 폴란드만이 참여한 훈련이었다. (더우기 향가리, 불가리아 및 루마니아는 전혀 참가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소련은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東歐圈內 危機解決의 수단으로서 충분치 않은 것으로 취급했음을 알 수 있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거의 배타적으로 유럽 문제, 즉 對NATO軍事安保 문제만을 취급하였던 바 이것은 NATO軍의 현대화 계획에 따른 퍼싱Ⅱ(PershingⅡ) 및 地上發射크루즈 미사일(Ground Launched Cruise Missiles=GLCM) 등의 장거리 戰域核武器(Long Range Theater Nuclear Forces=LRTNF)의 歐洲配置에 대한 대응조치로 이루어진 것이다.

東歐國들은 소련의 對NATO 비난에는 적극 동조하면서도 各國의 軍費增加를 수반하는 소련의 구체적 對應措置(地對地 미사일의 東歐圈配置)에 대해서는 否定的 反應을 보여왔다.

V.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평가

앞에서 이루어진 역사적 전개과정을 검토할 때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적 추세를 보여 왔다. 첫째,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소련

에 의한 東歐國들에 대한 政治的 統制機構로서의 성격을 지속적으로 보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9년의 개혁 이후로 同條約機構 내에서의 東歐國들의 참여도는 증가하였던 바 이것은 동 조약기구의 결정과정에 있어서 동 구각국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의 강화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단순히 정치적 통제기구로서만 보기에는 바르샤바 조약국들의 軍事的 能力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꾸준히 개선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서로 갈등되는 몇 가지 추세는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성격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라는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바 본 절에서는 지금 까지 제기된 견해들을 바탕으로 그러한 평가작업을 시도하고자 한다.

실제로 그러한 평가작업은 상당한 정도가 바르샤바 同盟體制에 대한 분석자의 시작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바 그러한 시작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잇슈를 포함한다. 첫째, 소련의 전반적 정치목적에 있어서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담당해 온 역할, 둘째, 소련의 軍事安保 계산에 있어서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담당하는 역할, 세째, 기타의 東歐國의 입장에서 이해되는 동 조약기구의 역할 등이 그것들이다. (Caldwell, 1975:16)

1. 소련의 政治的 目標와 바르샤바 조약기구

지금까지 이루어진 西方側 학자들에 의한 바르샤바 기구의 분석은 암도적으로 소련의 정치적 또는 이데올로기적 목적에 맞추어져 이루어졌다. 이러한 분석에 따르면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주된 목적은 소련의 軍事安保의 증진이 아니라 東歐諸國에 대한 소련의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통제에 놓여 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견해를 가장 강력하게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존스(Christopher Jones)는 다음과 같은 증거를 들면서 그러한 논지를 주장하고 있다.

존스에 의하면,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對西方 공격 또는 西方에 대한 방위라는 목적이 완전히 부인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보다는 東歐國에 대한 소련의 신속한 軍事干渉能力을 유지하고 동시에 소련軍 占領에 대한 지속적 저항을 가능케 하는 東歐國들의 능력을 사전 봉쇄하는 데 보다 더 큰 목적이 있다고 주장한다. (Jones, 1984:87) 동시에 東歐各國內 親蘇的 지배 엘리트들은 이러한 소련의 군사적 간섭 능력을 바탕으로 각국내 민족주의적

반대세력을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된다.(上同)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존스는 東歐國들의 개별적 군대에 의해 소련의 東歐內統制體制가 실질적으로 받고 있는 威脅의 내용, 친소적 바르샤바 조약국의 軍隊에 대한 個別國家가 장악하고 있는 통제의 성격(斷片化) 및 東歐圈內에서 개별국 군대가 수행해 온 역사적 기능을 검토하고 있다.

東歐에 있어서 소련의 軍事統合에 효과적으로 저항하고 독자적으로 군사력의 통제를 확보하고 있는 국가는 유고슬라비아, 루마니아 및 알바니아의 3국이다. 물론 이들 나라가 자국의 군대를 동원하여 소련에 대한 군사적 승리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국내 친소세력과 토착저항세력 사이의 교착상태를 결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존스는 평가한다.(Jones, 1984:88) 소련의 입장에서 볼 때 이들 세 나라의 독립적 자세가 자국에 대한 직접적 위협요소는 아니지만 최소한도 각국 내에서 反蘇勢力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또한 對外的으로 단합된 정책의 실지를 어렵게 함으로써 용인할 수 없거나 최소한 전혀 바람직하지 않는 것임에는 분명하다. 따라서 東歐各國에 있어서의 민족주의 성향의 증가에 대해서 소련은 간섭정책을 견지하여 왔다.

바로 이러한 간섭정책의 성공여부는 바로 간섭대상국이 독자적 군대를 보유함으로써 소련의 간섭에 효과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었다고 존스는 주장한다. 즉 그에 의하면 소련의 간섭을 저지하기 위해서 동구지도자들은 최소한 네 가지의 능력을 과시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 소련의 군사점령에 장기간 저항할 수 있는 정규·비정규군의 동원 능력, 둘째, 地下에 잠적하든 또는 해외에 망명하든 지속적 정치 지도력의 유지 능력, 세째, 국내 친소세력들을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반역자로 몰 수 있는 능력, 네째, 소련에 저항하는 민족해방전에 대한 국제적 지지의 동원능력이 그것들이다.(Jones, 1981:62-3)

이렇게 볼 때 유고슬라비아, 루마니아 및 알바니아의 3個國은 그러한 능력을 과시할 수 있었던 데 비해 항가리, 폴란드 및 체코슬로바키아 3국은 그러한 능력을 과시할 수 없음으로 인해 對蘇抵抗이 실패할 수 밖에 없었다고 여겨진다.

결국 소련에 항거하는 獨自的 軍事能力이 독립적 또는 민족주의적 정책의 관전이 되는 만큼 소련은 동구 각국이 독자적 군사능력의 배양을 의도적으로

또한 조직적으로 예방하려고 노력해 왔다고 존스는 주장하면서 그러한 예방의 노력을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조직 및 업무수행상의 특징에서 발견하고 있다. 그가 제시하는 조직 또는 업무수행상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合同軍事訓練, 軍事理論의 통합, 軍事行政組織의 통합, 政治的指揮部의 통합, 軍事教育體制의 통합 등에서 발견되고 있다.

가. 合同軍事訓練

1961년 그레취코元帥에 의해 처음 도입된 바르샤바軍 合同訓練은 공식적으로는 NATO軍의 核攻擊에 대한 바르샤바 조약군의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소련군에 대한 동구국들의 在來式 戰爭에 의한 방위능력을 축소시킨다는 목적으로 함축되어 있다고 여겨진다. 즉 합동훈련을 통해 동구국의 군대들은 여러개로 나뉘어진 집단군에 소속하게 됨으로써 소련의 군사적 간섭이 용이하게 되었다. 이렇게 동구국 軍隊의 斷片化라는 목적에 봉사하는 합동군사훈련의 특색으로 존스는 다음과 같은 점을 예시한다.

첫째, 합동군사훈련의 기회 및 수행 책임은 바르샤바軍 합동참모부에 귀속되어 있다. 이점으로써 각국 군대는 독자적 지휘권을 상실하고 있다. (Jones, 1984:94)

둘째, 합동군사훈련에 따라 각국은 자신의 국토내에서 師團級 수준의 대규모 군부대에 대한 훈련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기인한다. 바르샤바軍의 합동훈련중 각국 군대가 순전히 자국내에서 훈련을 한 경우는 전체의 3분의 1을 넘지 않고 최소한 3분의 1은 外國 및 自國內에서 훈련을 하게끔 되어 있다. 그리고 순전히 자국내에서 훈련을 하는 경우에도 단독 훈련이 아니라 조약군의 일부로서 활동하게끔 되어 있다. (Jones, 1981:118-21)

또한 이 훈련에 있어서 東歐國의 軍隊가 自國指揮官을 갖는 경우는 전체의 3분의 1이 되지 않는다. (上同) 이러한 합동훈련은 대체로 합동정치활동과 동시에 수행되는데 그 명분은 대체로 국내외적 敵으로부터 「사회주의 업적」을 지킨다는 데에서 발견된다. (Jones, 1981:126-30)

존스에 의하면 이러한 合同軍事訓練의 실시와 더불어 처음으로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소련의 對東歐統制機構로서 작용하게 되었고 따라서 아래의 네 가지 기구가 그러한 목적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고 여겨진다.

나. 軍事行政組織의 통합

바르샤바 조약기구하의 군사기구로는 聯合司令部, 國防相會議, 軍事委員會, 그리고 條約軍參謀部 등이 설치되어 있다. 이중에서 가장 핵심적 기구는 聯合司令部로서 그 司令官職에는 소련의 元帥가 취임해왔고 부사령관은 각국의 국방장관들(1969년 개혁후로는 차관들)이 취임하게끔 소련과 동구국들 사이의 不平等關係가 분명히 드러나 있다.

1968년의 체코슬로바키아 사태 이후 시도된 1969년의 개혁안에서 國防相會議는 政治咨問會議(PCC)에서 별도로 조직되어 독립하였다. 이 기구는 동구권 군사정책 전반에 대한 토론을 하게끔 되어있지만 그 정확한 기능은 불분명하다. 이 회의의 구체적 작업기관으로서는 바르샤바 조약군 참모부의 중요한 역할로 보아 국방상 회의는 독자적 정책결정기관이라기보다는 참모부에 의해 결정된 사항들에 대한 승인기관의 성격이 짙다.

1969년 개혁후 국방상회의와 함께 설치된 軍事委員會는 조약군 사령관과 부사령관으로 구성되는데 역시 그 활동에 있어서는 조약군 참모부에 의존하는 바 크다.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軍事的 權威의 實所在地는 司令官의 行政기구로서의 條約軍參謀部로서 司令官과 제 2人者인 參謀長에는 소련군 元帥들이 계속 취임하여 왔다. 이 참모부는 합동군사훈련 및 兵力訓練의 기회, 지휘 및 평가와 같은 핵심기능을 담당하여 왔다.

위와 같은 통합된 軍事行政組織을 바탕으로 東歐軍은 사실상 소련군의 지휘하에 통합되어 독자적 방위능력을 거부당해 온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다. (Jones, 1981:5장)

다. 軍事理論의 統合

소련은 바르샤바 조약국들간의 軍事理論에 관한 조정을 시도함으로써 동국들의 독자적 전략개발을 억제하는 것으로 평가된다.(Jones, 1981:6장) 소련의 군사이론에서는 사회주의 국가들간의 상호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여하한 군사이론도 배격되고 있다. 이런으로써 獨自的 能力에 의한 독자적 방어개념이 결국에는 反蘇的 軍事行動으로 연결되는 것을 사전에 봉쇄하고 있다고 존스는 주장한다. 바로 이러한 군사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合同軍軍訓練에 정당화되는데 궁극적으로는 東歐國 軍隊들의 斷片化에 기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라. 政治活動의 통합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軍事組織과 아울러 中央政治行政局(Main Political Administration=MPA)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軍事活動을 보조하여 선전, 軍隊내의 黨活動 및 幹部管理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동조약 기구의 가맹국들은(루마니아 제외) 각기 이 기구에 MPA대표를 파견하며, 주로 소련과 개별 동구국 대표들 사이의 雙務的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답변체제를 통해 조약군 장교 및 사병들에 대한 정치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통합된 政治行政局의 기능은 존스에 따르면(Jones, 1981:171-176) 개별 동구국들이 개별적 領土防衛의 개념을 개발함으로써 이 지역에서의 소련의 헤게모니에 대한 挑戰을 예방하는 데 있다. 소련은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MPA체제는 구체적으로는 東歐各國이 그 군사활동에서 소련에 의해 제정된 軍事的, 政治的 公理들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는가를 감시함으로써 그러한 挑戰의 防止기능을 수행한다고 존스는 주장한다. 또한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주관하는 공동정치활동 및 이데올로기 교육 프로그램은 소련이 통제하는 동 조약기구의 중앙기관들에 대한 東歐國 관리들의 종속을 정당화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된다. 또한 合同軍事訓練과 연계되어 실시되는 합동정치활동은 조약군의 士兵들에게 他國干渉에 대한 심리적 준비를 시켜놓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관찰된다.

바르샤바 조약기구 政治行政局이 실시하는 이데올로기 교육은 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본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각 국가의 黨과 國家機關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하는 社會主義 愛國心, 둘째, 國內外의 敵으로부터 社會主義의 업적을 소련 및 기타 동구국의 합동방위를 강조하는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 세째 西方諸國, 특히 獨逸을 지적하는 帝國主義國家들에 대한 階級的 憎惡感이 그것들이다.

마. 軍事教育의 統合

바르샤바 조약기구 자체는 군사교육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고 있지 않으나 이 조약기구의 연합사령부는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조약국간의 교환교육체제를 총괄하고 있다. 이러한 교환교육체제 속에서 東歐國들은 장교들을 소련에 파견하여 교육시키고 소련은 교관들과 관계 자료들을 동구에 보냄으로써 통일된 軍事教育의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바르샤바 조약국들에 있어서 군사교육 체계는 3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것은 戰術, 作戰(연대급) 및 戰略의 3단계로 나뉘어져 있는 軍事戰體系에 상응하는 것이다. 초급장교급의 戰術論은 대체로 각국의 군사교육기관에서 교육되며 中級장교들의 교육은 각국과 소련의 교육기관에서 실시된다. 특히 전문분야에 관련된 중급장교의 교육은 거의 소련이 독점하고 있다. 이에 비해 戰略 수준의 교육은 소련에 의해 독점되고 있다. 따라서 각국 군대의 요직을 맡고 있는 고급장교들은 대부분 소련에 유학하여 교육을 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바르샤바 조약국들의 군사교육체계가 東歐國의 고급장교들로 하여금 소련에 복속하는 단일 사회주의권 將校團을 만드는데 주목적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존스는 주장한다. 첫째, 東歐圈 將校團으로 하여금 領土防衛에 관련된 이론과 실제에 관해 훈련될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둘째, 東歐 將校團의 고위층에 있어서 親蘇的 집단을 계속 배양하고 있다. (Jones, 1981:206) 특히 두 번째의 기능과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들은 소련 최고군사교육기관 출신 장교들이 각국 군대의 최고직들과 조약군의 상층부를 독점한다는 사실에서 발견된다.

이와 같이 동구권내의 군사교육체계로 소련의 동구권내 군사적 해제모니유지와 밀접히 관련되어 조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바르샤바 조약기구와 소련의 軍事的 目標

앞에서 인용된 존스의 논지로 대표되는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성격에 관한 기왕의 서방측의 견해는 구체적 증거 등에 의해 잘 지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가 갖는 한계점을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군사적 역할, 즉 소련의 안보와 관련된 동 조약기구의 기능에 관해서는 지나치게 저평가하는 경향이 상당히 짙게 나타난다. 실제로 지난 30여년간 바르샤바 조약기구 가맹국들에 대한 소련의 군비증강정책을 살펴볼 때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갖는 군사적 기능을 우리는 전혀 도외시하기 어려운 것으로 여겨진다.

예컨대 1961년 처음 실시된 合同軍事訓練의 경우, 이것은 당시의 변화된 국제정치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볼 수 있다. 즉 당시 미국 캐네디 대통령의 NATO軍 재래식 군사력 증강계획, 中共과 소련의 공식적 관계단절, 베를린 위기의 경험 등이 당시 합동군사훈련 실시의 직접적 배경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대외적 안전문제가 고려되지 않은채 對外

的 統制라는 관점에서만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성격과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균형 있는 것은 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1968년의 체코슬로바키아 사태 이후 특히 1972년~1975년 사이에 소련은 바르샤바 조약군 중 NATO와 직접 대치하고 있는 東獨, 폴란드 및 체코슬로바키아 三國에 대한 軍事現代化를 강력히 추진한 바 있다. 물론 이들에게 제공한 장비와 무기들이 소련이 보유하는 최신장비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나 바르샤바 군사기능에 대한 소련의 지속적 관심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東歐國들의 視角

바르샤바 기구에 대한 東歐國들의 시각은 동 기구에 대한 소련의 시각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즉 東歐國들의 西方을 상대로 하는 군사적 안전은 실제로 소련의 군사적 보호없이는 지키기 어려운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한에서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군사적으로 동구국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소련의 노골적 패권적 자세에 대한 민족주의적 저항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소련의 동구국들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비쳐지게 된다.

이러한 二重的 성격은 東歐國들 안의 엘리트들 사이의 갈등으로 나타나는 바 親蘇 세력들에 있어서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자신들의 안전, 그리고 나아가서는 자신들이 지배하는 국가 전체의 안보를 위해 중요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비쳐지게 되고 그 반대편 입장에서는 질곡으로 표시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소련을 포함한 전체 동유럽권에 있어서 형성되어 온 체제는 소련을 그 盟圭로 하는 독특한 「사회주의 국제질서」였고 이 질서에 대한 정당성 획득을 위해 상당한 노력이 기울여져 왔음을 인식할 때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대한 東歐國들의 태도가 전면적 거부로 발전할 가능성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잠재화되어 있는 민족주의적 태도에 대해서도 소련은 1969년 이후의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대해 민족주의적 주장을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반영함으로써 이 체제 자체의 기본적 성격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대한 東歐國들의 태도는 당분간은 궁정적 기능을 인정하는 것으로 지속될 것

으로 보인다.

VII. 結論

앞에서 검토한 바에 따르면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기능은 두 가지로 나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그 하나는 소련의 의한 東歐國들에 대한 政治的一軍事的 統制에 있고, 다른 하나는 西方으로부터 느끼는 군사적 위협으로부터의 軍事的 安保를 도모하는 데 있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은 이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을 두고 그 기능의 구체적 수행과정을 추적하는 데 성공하여 왔다. 그리고 그 연구를 바탕으로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성격을 파악하여 왔고 이 두가지 기능 중 하나에 강조점을 두었던 바 서방세계에서의 연구는 주로 그 정치적 통제기능을 강조하는 데 초점이 모아져 왔다. 이에 비해 소련측의 공식적 태도는 군사적 기능을 강조하였다. 특히 서방측의 견해는 소련의 공식적 발표를 상대적으로 평가절하하였다. 그러나 과연 이 두가지 시각이 반드시 상호 대립되는가에 대해서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재고의 필요성은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그 제도적 표현으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내의 독특한 국제질서 관념과 이 관념을 바탕으로 하는 소련의 독특한 安保觀을 염두해 둘 때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2차세계대전 이후의 국제정치질서는 美·蘇를 각각 盟主로 하는 兩陣營간의 兩極化現象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음을 잘 알려진 일이다. 이것은 美國과 蘇聯에 어떤 나라도 軍事的으로 도전할 수 없게 된 사태를 반영하는 것이고 이러한 국제체제는 1945년의 얄타協定을 통해 미·소간에 상호 인정되어 온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소련은 東歐地域內에서 배타적 지위를 향유하여 왔고 이러한 것은 超强大國으로서의 소련의 고유한 「權利」로서 인식되게 이르렀다. 이러한 「權利」에 대한 침해는 곧 소련의 安保에 대한 도전으로서 간주되게 이르렀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이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가의 여부는 별도의 문제로 차치해 놓고 볼 때 戰後의 소련의 모든 對外政策上의 자세는 상기와 같은 超强大國의 霸權의 論理에서만 설명이 가능한 것이다. (Valenta, 1986 참조) 이와 같은 超强大國의 論理가 구체적으로 표시된 것이 소련식 「制限主權論」으로 표출되었다고

할 때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그 구체적·제도적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東歐國들에 대한 소련의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통한 統制의 의미가 이해된다. 이렇게 볼 때 이러한 統制와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통한 軍軍的 強化의 노력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소련의 東歐國들에 대한 反民族主義의 노력은 레닌주의적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이데올로기적 명분으로 정당화되었는데 실제 이에 대한 東歐國들의 이탈은 소련식 국제질서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붕괴는 결국 소련 자체의 군사적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느껴지는 만큼 이데올로기적 安保와 軍事的 安保와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태는 전통적 민족주의적 시각에서 볼 때 분명히 常軌를 벗어난 것으로 從屬이라는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독특한 양상이다. 소련의 그동안 정치선전적 노력은 자신과 東歐國들의 관계에서 나타난 이 「從屬」의 양상을 부인하는 테로 일관되어 왔으나 아직 그것이 충분히 성공을 거둔 것으로는 볼 수가 없다. 그러한 한에서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통해서 드러나는 소련과 東歐國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내부적 不安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參 考 文 獻

Brzezinski, Zbignie K.

1967 *The Soviet Bloc: Unity and Conflict*,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Caldwell, Lawrence T.

1975 "The Warsaw Pact Directions of Change," *Problems of Communism*, Vol. 24-5 (September-October)

Erickson, John

1976 *Soviet-Warsaw Pact Force Levels*, Washington, D.C.: United States Strategic Institute

Garthoff, Raymond

1966 *Soviet Military Policy: A Historical Analysis*, New York: Praeger, Holloway, David and Sharp, Jane M.O.(eds.)

1984 *The Warsaw Pact: Alliance in Transition*,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Jones, Christopher D.

- 1981 *Soviet Influence in Eastern Europe: Political Autonomy and the Warsaw Pact*
New York: Praeger
- 1984 "National Armies and National Sovereignty," in Holloway and Sharp, pp.
87-110.
- Johnson, A. Ross
- 1977 *Soviet-East European Military Relations: An Overview*, The RAND Corp.,
p.5383-1
- 1984 "The Warsaw Pact: Soviet Military Policy in Eastern Europe," in Terry,
pp.255-83.
- Johnson, A.Ross, Dean, Robert W. and Alexiev, Alesxander
- 1980 *East European Military Establishments: The Warsaw Pact Northern Tier*,
New York: Crane Russak
- Mackintosh, Malcom
- 1963 *Strategy and Tactics of Soviet Foreign Policy*,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1969 "The Evolution of the Warsaw Pact," *Adelphi Papers*, No.58, London: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 McNeil, Robert H., (ed.)
- 1967 *International Relations Among Communists*, Englewood Cliffs, N.J.: Prentic
Hall
- Remington, Robin A.
- 1971 *The Warsaw Pact: Case Studies in Communist Conflict*, Cambridge, Mass.:
MIT Press
- Schulman, Marshall D.
- 1963 *Stalin's Foreign Policy Reappraised*,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Simon, Jeffrey
- 1985 *Warsaw Pact Forces: Problems of Command and Control*, Boulder: Westview
Press
- Skilling, H. Gordon
- 1966 *The Governments of Communist East Europe*, New York: Crowell
- Starr, Richard F.
- 1977 *Communist Regimes in Eastern Europe*, 3rd ed., Stanford: Hoover Institution
Press
- Terry, Sarha Meilejohn(ed.)
- 1984 *Soviet Policy in Eastern Europe*, New Haven, Conn.: Yale University
Press
- Triska, Jan. F. (ed.)
- 1986 *Dominant Powers and Subordinate States: The United States in Latin*

- America and the Soviet Union in Eastern Europe,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 Ulam, Adam B.
- 1974 *Expansion and Coexistence: Soviet Foreign Policy*, New York: Praeger
- Valenta, Jiri
- 1986 "Military Interventions: Doctrines, Motives, Goals and Outomes," in *Triska*, pp. 261-84.
- Wolf, Thomas W.
- 1965 *The Evolving Nature of the Warsaw Pact*, The RAND Corporation, RM-4385-PR
- 1970 *Soviet Power and Europe*, 1945~1970, Baltimore: Johns Hopkins Press
- Zinner, Paul
- 1952 "The Ideological Bases of Soviet Foreign Policy," *World Politics* (July)